조선문제가 국제화되기까지 1

조선문제는 이렇게 생겨났다



조선문제는
이렇게 생겨났다

조선 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 106(2017)년

머 리 말

아메리카원주민의 피바다우에서 생겨난 첫 시기부터 령토팽창의 야욕을 품고 끊임없는 정복전쟁을 벌려온 미제는 19세기에 이르러서부터 조선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쳐 지난 100여년동안이나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들씌웠다.

미제는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문제를 의도적으로 국제화하기 위하여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였다.

미제는 세계의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저들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고 자주적으로 나가는 조선에 대하여 《악의 축》이요, 《불량배국가》요, 《폭정의 전초기지》요 하면서 갖은 험담을 늘어놓는 한편 《핵문제》와 《대량살륙무기전파》 등을 구실로 그릇된 반공화국여론을 류포시키고있으며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하여 유엔과 국제기구의 이름을 도용하고 추종국들과 합세하는 등 국제적포위망을 형성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다.

조선문제를 국제화해온 미제의 집요한 책동에 의하여 조선인민은 반세기이상이나 북과 남

으로 갈라져 살고있으며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편집부는 미제가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 조선문제를 국제화하여 조선인민을 굴복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미제의 대조선국제화책동을 력사적으로 종합하고 그 반동성을 폭로비판하기 위하여 이 도서를 편집발행한다.

차 례

1. 조선의 백년숙적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침략과 략탈로 자본의 시초축적을 강행하여 자본주의단계를 거쳐 제국주의단계에로 이행한 유미렬강들은 19세기에 이르러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연안의 광대한 지역들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렬강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극동지역에서 아직 식민지로 되지 않은 조선과 중국(청나라), 일본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에 달라붙었다.

특히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이 극심하였다. 유럽렬강들보다 뒤늦게 식민지쟁탈전에 나선 미제는 극동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다른 렬강들의 간섭을 견제하려고 하였으며 극동지역에서도 기본은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광분하였다.

미제가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게 된것은 우선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날 때부터 침략적 본성을 가지고있은것과 관련된다.

침략과 략탈로 이어진 미제국주의의 죄악의 력사는 앵글로색손식인종들이 1606년 제임스타

운에 첫 거류지를 세워 대서양연안의 북아메리카땅에 발을 붙이기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되였다.

이때로부터 미제의 조상들은 가장 침략적이며 강도적인 방법으로 령토를 확장하여 반세기도 못되는 사이에 70여개 종족의 인디안 수백만명을 거의나 전멸시키고 북아메리카지역의 13개주를 차지하였다.

그후 략탈자들은 1675년-1677년 뉴 잉글랜드(오늘의 뉴 햄프셔, 마사추세쯔 등)에서 일어난 인디안들의 반항을 야수적으로 진압하고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미제는 독립후 침략적인 령토팽창의 길에 나섰다.

대서양연안 13개 주만을 포괄하고있던 미제국주의는 영국과의 식민지쟁탈을 위한 전쟁(1776년—1783년)을 통하여 미씨씨피강 동쪽의 넓은 지역을 강점하여 령토를 넓히였다.

미제는 1803년에 루이지아나지역을 프랑스로부터 헐값으로 빼앗아냈으며 1819년에는 에스빠냐식민지였던 플로리다를 강탈해냈다.

그후 미제는 1845년에 메히꼬령토인 텍사스를, 1846년에 영국식민지인 오레곤지방을 그리고 1848년 5월에 메히꼬와의 침략전쟁을 통하여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아리조나, 콜로

라도 등 여러 지방을 련이어 강점하고 1853년에는 메히꼬의 카텐지방을 빼앗아냄으로써 미씨씨피강 서쪽지역을 손아귀에 넣어 또다시 령토를 태평양연안까지 넓히였다.

이처럼 본래부터 침략적본성을 가지고 형성되고 발전되기 시작한 미제국주의가 조선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치게 된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였다.

미제가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게 된것은 또한 조선이 차지하는 전략적위치의 중요성과 관련된다.

조선은 자원이 풍부할뿐아니라 중국과 로씨야와 련결되여있고 일본과 가까이 있으며 아시아대륙과 태평양상의 그 어디에나 갈수 있는 륙로 및 해상로와 련결되여있는 나라이다.

미제에게 있어서 조선반도는 아시아나라들을 쉽게 침략할수 있는 좋은 발판이였다. 그리하여 미제는 동북아시아에로의 진출에서 조선강점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당시 로씨야주재 미국공사였던 크레이가 《미국이 장차 동북아시아에서 정치적, 경제적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해군과 륙군에 튼튼히 의거할수 있는 기지를 창설해야 하며 그러한 곳으로서는 지브랄타르와 같은 의의를 가지는 조선남해의 거문

도를 우선 점령해야 한다.》고 한 사실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19세기에 이르러 미제는 조선에 대한 침략을 계획하고 준비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무력에 의한 침략, 사상문화적침략, 경제적침략 등 온갖 책동을 다 감행하였다.

미제는 우선 조선을 저들의 침략대상으로 정하고 조선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다.

아메리카본토를 강점한 후 국내외에서 감행한 자본축적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확립된 미국의 근대적공업은 이전의 상업자본이 요구하던 중개무역대상으로서의 대외시장이 아니라 근대산업자본주의의 상품시장으로서의 대외시장을 요구하게 되였다.

미제는 저들의 딸라주머니를 채우기 위하여 대서양과 인디아양을 건너 동북아시아연안으로 상선들을 계속 들이미는 과정에 조선에 매장되여있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자연부원을 탐지할수 있었고 조선을 저들의 상품을 처리할수 있는 대외시장의 적합한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미제는 19세기 30년대에 벌써 조선침략의 강도적야욕을 품기 시작하였으며 그를 위한 준비를 다그쳤다.

1832년에 미국정부는 동남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을 강요하기 위하여 동방에 대한 행각에 나선 특별사무관인 에드먼드 로버츠에게 조선침략의 가능성을 속히 조사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이러한 임무를 받고 여러모로 활동하던 로버츠는 1834년 5월 13일 국무장관에게 한 귀환보고에서 조선과 무역의 길을 열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동방에서 아편장사를 하고있던 미국자본가들은 도이췰란드선교사를 고용하여 그를 조선에 잠입시켜 침략의 길을 직접 닦게 하려는 음모까지 꾸미였다.

그후 1845년 2월 미국회 하원의원이며 통계위원회 위원장, 하원해군위원회 위원장인 플래트는 조선의 항구와 시장을 즉시 개방하여야 한다는 침략적인 《조선개방안》을 미국회 하원회의에 들고나왔다.

미국에서 조선을 개방시킬데 대한 문제는 플래트가 처음으로 고안해낸것이 아니였다.

이미전부터 미제의 호전분자들 특히는 조선의 주변나라들에 나가있던 미국의 외교관들과 조선해협을 질러다니는 해적무리들속에서는 하루빨리 조선을 가로타고앉아야 한다는 망발들이 튀여나왔다.

약삭바른 플래트는 이러한 요구가 제기된 상태에서 그것은 응당 미국의 정책으로 작성되여야 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종당에는 국회에 제출할 《조선개방안》을 만들게까지 되였다.

2월 12일 워싱톤에서 열린 미국회 하원회의 연단에 나선 플래트는 오만하게도 《조선의 항구와 시장들에 대하여 우리 상인과 해원들의 사업의욕을 돋구기 위한 때는 왔다. 조선은 우리의 상업발전을 위해서뿐아니라 극동에서 미국의 전반적리익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것이다.》고 하면서 미제의 략탈적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선을 즉시 개방시킬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여나섰다.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려는 미제의 흉계는 이처럼 미국회에서 강도적으로 모의되였다.

미국회에 건의되였던 《조선개방안》은 미제가 도발한 메히꼬에 대한 침략전쟁(1846년-1848년)때문에 실천에 옮겨질수 없었으나 《조선개방안》이 미국회에서 토의되였다는것은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야망이 벌써 오래전부터 로골화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메히꼬와의 전쟁을 통하여 광대한 면적의 령토를 강탈하여 태평양연안에까지 령토를 넓힌

미제는 19세기 5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에 날카로운 눈초리를 돌리게 되였다.

그때까지 미제는 아시아에로의 항행을 위하여 대서양을 건너 아프리카남쪽을 에돌아 인디아양을 거치고있었다. 그러던것이 이 시기에는 태평양을 건너 직접 아시아에 기여들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여 미제는 극동지역에 대한 간섭에서 유럽의 렬강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였다.

하여 미제는 이 시기에 와서 이미전에 추구하였던 상품시장확보에 대한 야욕뿐만아니라 아시아대륙에로의 진출을 위해 태평양횡단항로의 기지까지 강탈하려는 야망을 품게 되였다.

그것은 당시 기선의 기술상태로서는 쌘프랜씨스코를 떠나 상해까지 태평양을 단번에 건너간다는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것이기때문이였다.

태평양횡단항로문제가 론의되던 그 시기 미국의 지배층속에서는 보급기지를 조선에 설정하자는 계획이 세워지고있었다.

일본인인 가쯔 가이슈가 1849년경에 미국에서 들은바를 적은데 의하면 《미국은 조선의 부산을 탐내면서 그곳을 쌘프랜씨스코와 상해사이의 항로를 위한 저탄소로 만들려고 하였다.》라고 되여있다.

이 기록이 무근거한 풍문이 아니였다는것은 당시 미국자본가집단의 한 성원이였던 아론 폴리머가 미국대통령에게 제출한《건의서》에서 구체적으로 증명되고있다. 이 《건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우리는 상해에서의 우선권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리한 위치와 최대급의 배들이 들어갈수 있는 안전한 정박지를 가지고있는 이 항구는 양자강이라는 큰강의 입구가까이에 놓여있으므로 조선과 일본은 거기로부터 배로 이틀이면 가닿을수 있는 거리에 있다. 이 모든것은 조선과 일본에 대한 무역과 관련해서 특히는 빠나마와 중국사이를 횡단할 미국기선 신설항로의 저탄소와 기항지로서 중국의 전체 항구를 위한 우위성을 부여하고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통하여 미제가 19세기 30년대부터 아시아침략을 위한 전략적기지를 조선으로 지정하였다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다.

미제는 또한 무력으로 조선을 강박하고 침략하기 위하여 로골적으로 책동하였다.

조선을 예속시켜 아시아대륙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미제의 책동은 미국에서 벌어진 국내전쟁(1861년-1865년)이후 산업부르죠아지가 나라의 실권을 잡게 되면서부터 본격화되

였다. 국내전쟁이후 자본주의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자 부르죠아지들은 대외시장을 쟁탈할데 대한 요구를 강하게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1866년부터 미국회에서는 조선침략문제가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상정되여 론의되기 시작하였다.

미제는 조선에 대한 침략을 무력에 의한 방법으로 실현하려고 하였다.

《셔먼》호의 침입은 조선에 대한 침략의 발단이였다.

1866년 7월에 프랑스가 저들의 선교사들이 조선봉건정부에 의하여 처단된것을 구실로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을 선포하자 미제는 어리석게도 조선이 큰 공포속에 휩싸여있을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기회에 선손을 쓰면 저들의 요구를 쉽게 실현할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다. 그리하여 침략선 《셔먼》호를 척후대로 조선에 침입시켰다.

《셔먼》호는 중국(청나라), 웰남, 타이 등 동남아시아나라들에서 략탈행위를 감행하여온 상습적인 침략선이였다.

미국출판물 《19세기 조선》에 의하면 원래 《셔먼》호는 1861년에 미국 남부군에 소속된 군함으로 건조되여 《프린씨스 로이얼》호라는 이

름을 달고 남북전쟁에 참가하였다가 북부군에 나포되여 1863년에 수리, 개조된 후 여러 전투들에 참가한 전함이였다.

미제는 남북전쟁시기 11군관구에 소속되였던 《프린씨스 로이얼》호의 이름을 미씨씨피방면군사령관인 셔먼의 이름을 따서 《제너럴 셔먼》호라고 고쳤다.

《셔먼》호의 길이는 60.085m, 너비는 8.235m, 높이는 9m이며 배수량은 600여t이였다. 배에는 2개의 보이라와 1개의 굴뚝, 2개의 돛대와 4개의 돛, 여러대의 뽀트와 포들이 있었다. 전투정원은 수십명이였다.

미제는 1866년 8월 프레스톤을 두목으로 하는 침략선 《셔먼》호를 완전히 무장시켜 조선에 침입시켰다.

이에 대하여 미국출판물 《조선의 문물》에는 《셔먼》호가 중무장을 하고 평양으로 간것은 《신비로운 사명》때문이라고 씌여있는가 하면 《은둔국조선》에는 《그들은 이상한 무장을 하고있었기때문에 떠나는 첫날부터 항해의 목적에 대하여 의심을 받았다.》고 기록되여있다.

1866년 8월 중국(청나라)을 떠나 조선령해에 불법침입한 침략선 《셔먼》호는 대동강어구에까지 침입하였다.

해적무리들은 조선봉건정부 지방당국의 여러차례에 걸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배의 국적도 기만하고 오만무례하게 행동하였다. 놈들은 통상을 운운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돌아갈수 없다.》고 도발적으로 나왔으며 대동강을 계속 거슬러오르면서 참을수 없는 도발행위와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놈들은 뽀트를 타고 대동강을 오르내리면서 물깊이를 재는가 하면 만경대아래 두루섬에까지 침입하여 평양의 동정을 살피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뿐만아니라 만경대대안에 불법상륙하여 옥연지라는 못이 있는 곳까지 10리 가까운 길을 정찰하는 한편 조선의 부녀자들을 릉욕하였으며 27일에는 침략선의 동정을 감시하고있던 평양감영의 중군이 탄 배를 보통강어귀에서 불의에 습격하여 중군과 그 동행자들을 랍치하여가는 만행까지 감행하였다.

8월 28일 대동강가의 한사정에서 평양감영대표와 침략선일당과의 담판이 진행되였다. 놈들의 비법적인 행위를 폭로규탄하고 랍치하여간 중군을 비롯한 조선사람들을 돌려보내며 즉시 물러가라고 항의하는 조선측의 요구에 미제강도들은 뻔뻔스럽게도 쌀 1 000석과 많은 금, 은, 인삼 등을 내놓아야 억류한 사람들을 돌려보내

고 물러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침략의 무리들은 저들의 요구가 일축되고 담판이 결렬되자 강도의 본성 그대로 더욱더 미친듯이 날뛰였다.

놈들은 대동강을 오르내리는 조선배들을 습격략탈하고 강변주민지대에 총포를 마구 쏘아대여 불과 며칠사이에 1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살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양각도부근에까지 침입한 침략자들은 뽀트를 갈아타고 오탄나루에까지 기여들면서 평양성침공을 기도하였다.

미제침략선 《셔먼》호의 침입과 강도적만행은 조선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일으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을 선두로 하는 만경대와 평양인민들, 군인들의 애국적투쟁에 의하여 1866년 9월초 침략선 《셔먼》호는 불속에 휘감긴채 대동강에 수장되였다.

미제는 《셔먼》호사건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조선에 대한 침략에 계속 매달리였다.

미제는 《셔먼》호의 종적을 조사한다는 구실밑에 1867년 1월에 군함 《워츄세트》호를 조선에 침입시켰으며 가소롭게도 《셔먼》호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구실밑에 미국함대를 서울로 침입시킬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력침략안

을 작성하였고 그후 1868년에는 조선침략을 위한 구체적인 모의를 하였다.

그것은 당시 조선의 실권자였던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고 그 유골을 미끼로 하여 조선봉건정부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한다는 것이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이 음모조작에 가담하였던 도이췰란드의 유태인해적 오페르트는 《대원군은 자기 아버지묘인 남연군묘를 자기의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있는데 이제 그것을 도굴하여 관속에 있는 매장물을 탈취하면 대원군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수 없다. 대원군과 조선정부는 매장물을 되찾기 위하여 개국의 요구에 응할것이며 조약에 조인하게 될것이다.》라고 하였다.

남연군묘도굴행위는 1868년 4월초 대포 9문과 230여명의 침략군을 실은《쉐난도아》호가 미해군중좌 페비커의 지휘밑에 황해도 풍천부(현재 과일군) 앞바다 허사진 송우포에 침입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쉐난도아》호는 대동강하구로부터 평안도와 황해도일대의 해안을 오르내리면서 총포탄을 쏘아대고 각종 도발과 살인, 방화, 략탈만행을 감행하였다.

《쉐난도아》호의 만행으로 조선군인들과 인민들의 이목이 그곳에 쏠렸을것이라고 타산한

상해주재 미국총령사관의 이전 통역 젠킨스를 우두머리로 한 100여명의 미제강도들은 조선봉건정부에 강요할 불평등조약의 초안을 가지고 침략선 《챠이나》호를 타고 5월 10일 충청도 아산만 삼교천하구에까지 기여들었고 덕산군 가야동에 있는 남연군의 무덤을 도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가장 철면피하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불평등적인 예속조약을 강요하고 조선을 강제개방하려던 미제의 계획은 완전히 파탄되였으며 《쉐난도아》호와 《챠이나》호의 침략무리들은 5월 중순 부랴부랴 도망치고말았다.

온갖 외교적권모술수와 위협, 공갈로써는 도저히 조선봉건정부를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간파한 미제는 이번에는 대규모적무력침공을 감행하는데로 넘어갔다.

미제는 1869년에 저들의 아시아함대를 증강한데 기초하여 조선원정함대를 편성(당시 미제는 아시아함대에 《모노카시》호, 《아휴로트》호, 《알라스카》호, 《베니시아》호, 《팔로스》호를 증강하였다.)하였으며 그해말에는 중국(청나라)주재 미국공사 로우에게 조선과의 불평등조약체결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고 아시아함대 사령관인 로제쓰를 조선원정함대 사령관으로 임명하

였다. 그후 조선원정함대는 중국(청나라)연해에서 전투훈련을 벌리면서 침략준비를 서둘렀다.

무력침공준비를 끝낸 미제는 1871년 5월 기함 《콜로라도》호(3 425t급)를 비롯한 5척의 군함에 80여문의 대포와 1 230명의 침략군을 싣고(이것은 당시 미국이 조선침략에 동원할수 있는 최대의 무력이였다.) 상해를 떠나 일본의 나가사끼를 거쳐 5월 21일 조선서해안의 아산만에 기여들었다.

놈들은 《동방정부나 인민에 대한 문제에서 관대성을 가질 때 그것은 정책상의 오유로 된다.》고 떠벌이면서 아무런 통고도 없이 조선령해깊이 침입하였다. 놈들은 강화도남쪽 물치도를 거쳐 6월 1일에는 손돌목일대의 조선포대를 습격하였으며 10일에는 강화도의 초지진을, 11일에는 광성진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의 결사적인 항전과 강경한 립장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침략의 무리들은 7월 3일 패잔병들을 끌고 도망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리하여 1871년의 대규모적무력침공도 수치스러운 참패로 끝나고말았다.

미제는 또한 조선의 자주권을 짓밟고 조선을 저들에게 예속시키기 위하여 음흉하게 책동하였다.

그것은 1882년의 《조미조약》체결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미제가 이 시기 조선에 대한 침략을 더욱 적극화하게 된것은 일본이 조선침략의 길을 열어놓은 유리한 조건(1876년 2월 3일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였다.)과 함께 미국자본주의자체발전의 요구와도 관련되였다.

이 시기 제국주의단계에로 넘어가기 시작한 미제는 세계제패야망을 가지고 먼저 아시아침략에 달라붙었다. 특히 미제는 아시아대륙에 침투하는데서 관문적위치에 있는 조선을 침략하려는 야망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하게 가지게 되였다.

미제는 조선에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을 강요하는것을 시급한 문제로 내세우고 1878년 4월 미국회 상원에서 《일본의 우의적알선》에 의한 조선과의 조약체결대책을 심의하였으며 그후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에 여러번 왕래한 일이 있는 슈펠트에게 임무를 주어 전권대표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우의적알선》에 의한 조약체결은 조선봉건정부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자 교활한 미제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있으니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맺으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보호》해주겠다는

달콤한 거짓말을 꾸며대면서 중국(청나라)을 통하여 조선의 봉건통치배들을 구슬리였다.

그리하여 1880년 8월에 청나라의 외교적실권자 북양대신 리홍장과 슈펠트사이의 제1차 중(청나라)미회담이, 1881년 7월～1882년 4월에 제2차 중(청나라)미회담이, 1882년 1월～4월에 조중(청나라)회담이 진행되였으며 이 회담들에서 조선과 미국사이의 조약체결교섭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미제의 술책에 의하여 1882년 4월에 조선봉건국가의 대표 령선사 김윤식과 슈펠트사이에 《조미조약》초안에 대한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민비일당의 사대투항주의적인 매국정책에 의하여 마침내 4월 6일에는 제물포에서 《조미조약》이 강압체결되였다.

각종 허위와 기만속에서 조작된 《조미조약》은 미제에게는 많은 특권들을 부여하고 조선봉건정부에는 그 특권들을 보장해줄 의무만을 규정한 강도적인 불평등조약이였다.

미제는 이 《조약》에서 무엇보다도 조선봉건국가의 정치적자주권을 란폭하게 짓밟고 그에 대한 정치적예속을 강화할수 있는 조항들을 규정하였다.

미제는 《조약》 제2조에서 이른바 《외교대

표》의 서울주재권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령사재판권(치외법권)을 규정하는 한편 저들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령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군대를 파견하여 소란자를 해산시키고 범죄자를 체포하여 극형에 처할》데 대한 조선봉건정부의 일방적인 의무만을 규정하였다. 뿐만아니라 미제는 《조약》에 류학생파견과 관련한 조항을 특별히 박아넣음으로써 앞으로 침략을 강화하는데 써먹을 친미주구들을 키워낼것도 예견하였다.

미제는《조약》을 통하여 다음으로 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와 예속을 강화할수 있는 여러가지 《권리》를 빼앗아내였다.

미제는 《조약》 제3조에서 이미 개방되여있는 모든 항구들에서 무역을 할수 있는 《권리》와 각종 영업권, 건물이나 땅을 빌리거나 주택, 창고를 건설할수 있는《권리》등을 규정하였다.

미제는 특히 《조약》에서 최혜국대우를 보장할데 대하여 규정(제14조)함으로써 앞으로 조선봉건정부로부터 새로운《권리》들을 끊임없이 빼앗아낼수 있는 특권을 가지였다.

미제는 《조미조약》에서 온갖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조항들을 규정하면서 파렴치하게도 저들이 마치 조선에 대하여 그 무슨 우의를 품고있

는듯이 가장하여나섰다. 미제는 《조약》 제1조에서 두 나라는 《… 영원히 평화롭고 사이좋게》 지내며 《만약 다른 나라가 어떤 불공평하고 멸시하는 사건을 일으켰을 때 일단 통지하면 반드시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정해》줄것을 규정하였다. 미제가《조약》첫머리에 이러한 조항을 박아넣은것은 봉건통치배들속에 미국에 대한 환상과 의뢰심을 조성하고 저들을 원조자, 조정자로 가장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강도적인 침략야망을 더 쉽게 이루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조미조약》체결후 미제가 자기의 당면한 리익을 고수하고 일본을 아시아침략의 《돌격대》로 써먹기 위하여 1905년 7월 29일 일제와《가쯔라—타프트협약》을 체결하고 일제의 조선침략을 적극 뒤받침해준 사실(미일제국주의자들의 공모결탁하에 체결된《가쯔라—타프트협약》에서는 일제가 미제의 필리핀지배를 인정하는 대신 미제는 일제의 조선침략에 적극 협력하며 일제의 조선지배를 인정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조선전쟁시기 《유엔군사령관》이였던 릿치웨이가 《미국은 1882년 조선과의 조약에서 제3국에 의한 〈비법적인 취급〉을 받을 경우 〈호상원조〉하기로 하였으나 미국은 조선에 대하여 무역협

정을 지키도록 독촉하려고 할 때 그것을 저지시키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실토한 사실 등은 《조미조약》이 위선과 기만으로 감싸진 침략적이고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이였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준다.

미제는 또한 조선침략의 지반을 닦기 위한 사상문화적침투에도 힘을 넣었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종교이다.

원래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는 흔히 무력침공의 전제로 되군 하였다.

미제는 처음부터 무력침략과 결합된 사상문화적침투에 매달리였다. 그것은 당시 조선봉건정부가 쇄국정책을 실시하고있었으며 그리스도교의 한갈래인 카톨릭교에 대하여 강경정책을 실시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무력침략과 결합된 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는 1866년 침략선 《셔먼》호의 침입과 때를 같이하여 시작되였다.

《셔먼》호의 침략자들은 중국(청나라) 천진에서 조선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파할 목적으로 많은 량의 《신약성서》를 배에 실었다. 그리고 영국인선교사를 리용하여 그로 하여금 《통역 겸 안내자》의 탈을 쓰고 조선사람들속에서

포교활동을 직접 벌리도록 하였다. 《서먼》호를 평양부 신장포구에까지 침입시킨 강도무리들은 여기서부터 여러곳에 정박할 때마다 그곳 인민들에게 《성서》책을 주면서 그리스도교의 전파에 급급하였다.

미제는 종교를 합법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을 조선에 침투시키였다.

조선에 대한 종교침투의 합법적권리를 강탈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이미 1882년 《조미조약》을 강요할 때부터 감행되였다. 이 조약체결을 위한 예비교섭때 슈펠트는 조약문에 그리스도교전파를 금지할데 대한 조항을 넣을것을 요구한 조선측의 요구를 일축해버리였다.

그후 미제는 1883년 7월초 선교사 맥레이를 조선에 침투시켜 기만적인 방법으로 조선봉건통치층으로부터 조선인이 아닌 사람들속에서 선교활동을 할수 있다는 비공식허가를 받아내였다.

미제는 이것을 기회로 하여 조선에서 그리스도교를 합법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884년～1885년사이에만도 장로교계통, 감리교회계통의 미국선교사들이 무리로 조선에 기여들게 되였다. 미제의 포교활동에 의하여 그리스도교는 1880년대에 벌써 조선의 광범한 지역에 퍼지게 되였다.

미제는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후《일본이 조선의 정권을 쥐였다면 미국은 조선사람의 심장을 틀어잡을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인그리스도교신자들을 10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1910년 봄 서울에서 열린《선교사대회》에서 이와 같은 목표를 내세웠다.) 종교에 의한 침략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선교사수는 1910년에 벌써 306명으로서 당시 조선에 기여든 외국선교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미국《북장로교회》는 해외에 파견한 선교사 총수의 3분의 1을 조선에 침투시켰다. 1920년에 미국의《북장로교》,《남장로교》,《북감리교》,《남감리교》의 4개 교단에서 조선에 파견한 선교사수는 336명, 교회 및 교리강습소 총수는 2 300여개, 목사, 전도사, 권사들은 모두 2만 3 000여명에 달하였다.

미국의《북장로교회》는 1885년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1895년부터는 평안도일대에서 포교활동을 시작하였다. 1920년에 이르러 서울, 선천, 의주, 신의주, 강계, 녕변, 재령, 해주, 청주, 대구, 안동 등지에 각각 포교구역들을 설치하고 매개 교구안에 교회당, 기도실, 주일학교 등 여러가지 명목의 포교거점들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포교활동을 맹렬히 진행하였다. 이외에도《북감리교회》는 경기, 충청, 강원, 황해, 평안도에서,《남감리교회》는 1885년이후 경기, 강원, 함경도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 포교활동을 벌리였다.

미제는 조선에서 종교에 의한 침략을 강화하기 위하여 1894년 5월에 서울에서 선교사회의를 연 후 1897년에는 선교본부에서 조선을 독립적인 선교구로 설정하고 조선에서의 선교활동을 더한층 강화할 모의를 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미국선교사들이 조선에 또 기여들었으며 수다한 교회당과 선교학교들이 새로 생겨나게 되였다.

미제는 조선인민들속에 무저항주의와 숭미사대주의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포교활동을 이른바 교육사업, 의료사업과 결부시켜 광범히 진행하였다.

조선에 기여든 미국선교사들은 하느님의 뜻을 전도하는 선교사로 또는 교육가, 자선가로 가장하면서 조선인민들로부터 략탈한 재부의 일부로써 1885년에《광혜원》,《리화학당》,《배재학당》등 병원과 학교들을 세우고 조선인민들속에 노예적굴종과 숭미사대주의사상을 전파하였다.

미제는 또한 종교에 의한 침략을 통하여 친

미주구들과 고용간첩들을 키워냄으로써 조선침략의 지반을 닦으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조선침략의 척후병들인 미국선교사들의 중요한 사명의 하나는 조선에서 친미주구들과 고용간첩들을 길러내는것이였다. 이로부터 미국선교사들은 초기에는 봉건통치층에 침투하였으며 장차 인민들속에 그 세력을 뻗치면서 조선인그리스도교신자들을 확대하여 저들의 침략정책실현의 앞잡이로 만들려고 하였다.

《조선인그리스도교청년회》가 그 대표적실례이다. 미국인을 명예총무로 하고 력대 총무자리에 미제의 앞잡이이며 극악한 민족반역자들인 리승만, 윤치호, 신흥우와 같은자들이 들어앉았던 이 《조선인그리스도교청년회》는 표면상 종교, 교육, 체육, 사교 등을 표방하였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청년들과 인민들속에 숭미사대주의를 전파하는것을 기본목적으로 삼았다.

이외에도 미국선교사들은 부르죠아사대주의자들과 어중이떠중이들을 조선인민의 피땀을 짜내여 얻은 막대한 재부의 일부로 미국류학을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장차 조선지배의 지반으로 리용할 친미주구들과 고용간첩들을 길러내였다.

미제는 조선에 대한 경제적침략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조미조약》을 통하여 그 누구보다도 먼저 치외법권과 최혜국대우를 비롯한 수많은 특권들을 강탈한 미제는 조선을 저들의 상품시장으로, 귀금속과 원료략탈지로 그리고 자본투하지로 전변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미제는 1883년 중엽부터 인천에 기여들어 략탈적인 무역을 시작하였다. 미국의 무역업자였던 타운센드는 1884년 5월 인천에 《타운센드회사》를 세우고 조선봉건정부에서 요구하는 물자판매와 청부를 독점하였으며 미국독점회사들의 조선대리점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초과리윤을 짜내였다.

미국자본가들은 낡은 총과 석유, 담배, 사탕같은 과잉상품들을 가져다가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팔아치웠다. 결과 조선에 대한 미국의 수출액은 1910년에 32만여원으로부터 1937년에는 2 771만여원으로서 무려 80여배로 늘어났다.

저들의 과잉상품을 조선에서 비싼 값으로 처리한 미제는 그 대신 조선의 금, 은을 비롯한 귀금속들을 헐값으로 략탈해갔다.

미제는 조선에서의 경제리권을 그 어느 외래침략자들보다도 먼저 그리고 많이 강탈하였다.

미제는 1880년대에 벌써 인천-상해, 부산-나가사끼항로설정권, 울릉도목재채벌권, 사금 및

진주채취권, 유리, 성냥, 화학공장설립권, 운산금광탐사권 등 수많은 리권들을 강탈하고 조선인로동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기 시작하였으며 1890년대에는 서울-인천간, 서울-개성간 철도부설권, 서울시내 전기, 수도, 전차시설부설권, 압록강류역목재채벌권 등을 강탈하여 그중 많은 리권들을 다른 나라에 비싼 값을 받고 팔아넘겨 폭리를 얻었다.

특히 미제는 조선에서 광산리권강탈에 미쳐 날뛰였다.

아직《조미조약》이 체결되기 전인 1881년 봄부터 조선에서 비법적으로 금광들에 대한 탐사행위를 감행하여온 미제는 큰 광산들을 장악하려고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미제는 19세기말까지 함경도 갑산의 고진동광산, 평안도의 운산, 희천광산(일본과 합작), 강원도의 화천, 강릉광산, 평양의 사동탄광, 황해도 홀동광산, 충청도 직산광산을 비롯하여 조선의 광산자원채굴권 대부분을 독점하고 막대한 량의 금을 비롯한 귀금속들을 략탈해갔다.

미제는 당시 조선의 총 금생산액의 70%를 차지하고있었던 운산광산에서만도 해마다 200만~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을 강탈하였으며 1903년부

터 1928년까지의 25년기간에는 8 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을 도적질해갔다.(미제가 경영하던 큰 광산들인 운산, 수안, 창성, 직산의 4개 금, 은광산들에서의 금, 은생산액은 1909년부터 1920년까지의 기간 조선 금, 은생산액의 80%를 차지하고있었다. 1916년 전조선 금, 은생산액 1 175만 7 000원가운데서 940만원은 이 4개 광산에 속하는것이였다.)

미제는 조선에 대한 침략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벌리는것과 함께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략탈, 파괴, 테로 등 온갖 야수적인 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이처럼 미제는 조선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친 첫날부터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백년숙적이다.

2. 미국의 기본과녁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반파쑈련합국들과 합의한 문제들을 로골적으로 뒤집어엎으면서《미국주도하의 세계새질서》를 떠들어대기 시작하였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제는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를 《소멸》하고 세계제패를 실현하기 위한《힘의 정책》에 공공연히 매달려왔다.

세계제패를 실현하는것은 미제국주의의 궁극적목표이다.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는데서 미제는 기본과녁을 조선으로 삼고 조선문제를 추종국들과 합세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제 마음대로 처리해왔다.

조선의 지정학적위치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제는《세계의 운동에 대한 지도는 미국이 맡아야 한다.》고 하면서 세계제패를 위한 침략적인 대외정책을 선포하고《미국주도하의 세계새질서》수립에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지역들을 장악하는데 힘을 넣었다.

특히 미제는 조선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광분하였다.

조선은 아시아대륙동쪽가운데에 자리잡고있으며 면적은 22만 3 370㎢이며 그중 크고작은 섬들의 면적은 5 907㎢이다.

조선반도는 지정학적위치의 중요성으로 하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세계제패실현에서 놓쳐서는 안될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요충지로 되였다.

조선반도가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요충지인것으로 하여 미제가 내놓은 력대 정책들에는 언제나 동북아시아지역의 조선반도문제가 기본으로 지적되여있었으며 대대로 미국의 지배층속에서는 조선반도지역의 중요성으로 하여 이 지역을 무조건 타고앉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거리낌없이 쏟아져나왔다.

이와 관련한 일부 자료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860년대에 조선에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을 강요하기 위해 날뛰던 중국(청나라)주재 미국공사였던 로우는 《나는 외국무역이나 무역을 늘이기 위하여 나라를 개방시키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조선이나 혹은 기타의 소여국가와 전쟁하는것을 반대한다.

나의 관점은 단순한 상업적리익보다 더 중요

한 의의가 있는것을 고려함에 기초하고있다.》고 하였다.

- 1882년에 중국(청나라)주재 미국공사 양그는 자기 정부에 《조선은 군사적관점으로 볼 때 그 령토에 들어서는자는 누구나 청제국의 개방된 문호를 얻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권고하였다.

- 8.15직후 미극동군사령관이였던 맥아더는 《나는 항상 조선을 무한한 가치가 있는 군사적전초기지로 인정하였다.》, 《조선은 아시아동북해안에서의 지배적기지로 될수 있다.》고 말하였다.

맥아더는 또한 군사전략적견지에서 볼 때 일본이《장래의 도약대》라면《조선은 대륙에로 건너가는 교량으로서 맞춤하다.》고 하면서 조선의 전지역을 정복하는 경우 《우리들은 쏘베트씨비리와 남방을 련결하는 유일한 보급선을 산산이 끊어버리고 … 울라지보스또크와 싱가포르사이의 전지역을 지배할수 있을것이다.》라고 하였다.

- 미국무장관이였던 덜레스는 조선을 아시아의 《고기덩어리》를 잘라내는《단검》이라고 묘사하였다.

- 1946년초 여름 미국대통령의 배상문제특별보좌관 에드윈 포레이는 조선의 북과 남을 돌아보고 6월에 트루맨에게 제출한 《조선정세에 관

한 견해, 결론 및 권고》라는 시찰보고에서 《조선은 크지 않은 나라이기는 하나 아시아에서의 우리의 전체 성공이 결정될수 있는 사상전쟁의 무대로 된다.》라고 하면서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정치, 경제, 군사적대책을 내용으로 한 방향적인 안을 내놓았다.

- 해방직후 미국무성 정보조사국의 비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었다. 《조선반도는 현재에 있어서도 그의 전력사를 통하여서와 동일하게 타국가들의 대립된 리해와 사상이 그 나라의 국내문제에 반영되여있어 이것을 좌우하고있는 한개의 각축전장이다. 조선이 차지하고있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지리적위치로 인하여 조선과 그 인민을 좌우하는것이 … 우리 나라의 지위를 상당히 강화하는것으로 될것이다. 정치적으로 조선이 미국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성은 물론 의심할바 없다.》

- 부르죠아평론가들은 해방직후 《조선이 오늘 극동의 복잡한 정치적류형가운데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조선이 중국, 일본, 쏘련가운데서 중요한 전략적지위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라고 썼다.

- 1949년 여름 뉴욕의 통신보도는 《미국의 강경파는 조선을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상

의 요충지로 보았다》고 하였다.

- 조선전쟁이후 미제는 남조선을 《극동에서의 미국의 요새》라고 하면서 남조선괴뢰군수를 늘이고 그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광분하였다.

- 1975년 5월 1일 당시의 미국방장관 슐레징거는 기자회견에서 남조선이 핵무기가 배비되여있는 미국의《전선방위지역》이라고 하였고 1980년대에 레간은 조선반도를 핵무기사용대상인 《1급지역》에 해당하는《전략상 요충지대》라고 선언하였다. 국방장관 와인버거는 남조선이 유럽과 함께 《미국전략의 제1선》으로 된다고 하면서 남조선을 전략적거점으로 튼튼히 꾸리는것은 《미국의 대아시아군사정책의 근간》으로 되며 조선반도를 장악하는것은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의 중요과제》라고 하였다.

-1980년대에 미제가 내놓은《다발보복전략》에서는 유럽과 중동 및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3대전쟁론》이 제기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당시의 미해병대 참모장 클리는 《당면하게 3대전쟁중 서태평양방면에서는 특히 조선반도지역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랭전이 종식된 후에도 조선반도의 전략적가치가 달라지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현대의 조선반도정세가 크

게 변화되고있는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것은 지리적조건이다. 조선은 세계가운데서도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활동적인 지역의 하나인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에 자리잡고있다.》고 하였다.

- 미국도서 《두개 조선》은 랭전후 조선반도의 전략적중요성은 한층더 부각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반도는 미국, 일본, 중국, 로씨야 이 4대국의 리해관계와 안전보장의 관심이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세계유일의 지역이다.》고 썼다.

- 세계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의 전략가들은 세계의 중심인 유라시아대륙을 장악하되 유라시아대륙의 중심부를 효률적으로 지배하려면 그를 둘러싼 주변의 가장자리를 지배해야 한다는 《가장자리전략》이라는것을 내놓았는데 이로부터 그들은 21세기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자면 조선반도가 포함된 동아시아지역을 비롯한 3개 지역(나머지 2개 지역; 동서유럽이 부딪치는 도이췰란드지역, 미쏘간의 군사력이 대치되였던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지역)을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미국우익보수세력의 정책작성에 관여하는 《반북조선적》인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극동안보담당 전문가들은 미국대외정책의 금후방향에 대하여 《21세기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기본

은 대아시아정책이며 그중에서도 조선반도가 기본초점》이라고 하면서 그 론거를 다음과 같이 들고있다.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절대적인 리익을 담보할수 없고 세계적판도에서 새 국제질서수립, 미국의 주도적지위와 역할을 담보할수 없기때문이다.》

보는바와 같이 미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위치에 있는 조선반도를 가로타고앉으려고 무진 애를 써왔다.

이미 오래전부터 아시아대륙에 마수를 뻗쳐온 미제는 랭전이 종식된 이후 세계군사전략의 중심을 유럽으로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기였다. 그 바탕에는 주요전략지대와 자원지대를 안고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미국의 손에 틀어쥐여야 세계를 지배할수 있다는 인식이 놓여있다.

풍부한 자원과 방대한 인구, 광활한 시장을 가지고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오늘 주도권쟁탈을 위한 대국들의 경쟁무대로 되고있다. 특히 대국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21세기에 정치, 경제, 군사, 기술, 문화 등 각 분야의 활동중심

지로 되고있는 동북아시아이다. 일본의 한 잡지는 《동북아시아에서 주요대국들은 영향력과 위신, 안전과 권력을 요구하여 전략적인 경쟁관계에 들어가려 하고있다.》고 썼다.

특히 그중에서도 맨 앞장에서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미국이다.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쟁탈에서 지리적으로 오는 불리한 조건과 경제적약점을 극복하고 다른 대국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이 의거하고있는것은 군사적우위, 전략적우위이다. 미국은 군사적우위로 다른 대국들을 누르고 동북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틀어쥐려고 하고있다.

여기에서 미국이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는 곳이 조선반도이다. 그것은 조선반도가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기본과녁으로 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미제가 조선반도를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기본과녁으로 삼고있는 리유는 무엇보다도 조선반도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지대라는것과 관련된다.

조선반도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지대라는 문제는 지구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로부터 산생되는 문제이다.

조선은 세계 사회주의의 유일한 보루이며 사

회주의재건운동의 중심이다.

미국이 제국주의련합세력까지 이끌고 사회주의조선을 단숨에 압살하려고 오래동안 기승을 부려왔으나 조선은 사회주의의 곧바른 길로 걸어왔다.

특히 이전 쏘련과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후에도 조선은 의연히 붉은기를 들고 사회주의의 빛나는 미래를 개척하는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왔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북조선은 동서방의 극적인 변화에 조금도 구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완강하게 나오고있는 유일한 사회주의보루》라고 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힘찬 전진은 이전 쏘련의 붕괴로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했다고 환성을 올리던 제국주의자들에게는 타격으로 되였다. 특히 미제는 이것을 방임할수 없는 사태발전으로 보았다.

미제는 조선이 사회주의보루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세계적판도에서 사회주의의 재생을 추동하는 중심으로 되고있는데서도 커다란 불안을 느끼고있다.

오늘 세계 사회주의운동은 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의하여 향도되는 력사의 새시대, 선

군시대를 격동속에 맞이하고있다.

그것은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전진을 추동하는 평양선언에 서명한 당들의 수가 세계 5대륙에서 날로 늘어나고있는 사실이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평양선언은 사회주의재생과 종국적승리를 위한 국제적운동의 새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선언으로, 자주성과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옹호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단결과 투쟁의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1992년 4월 20일 평양선언을 발표할 당시 여기에 서명한 세계 여러 나라의 공산당, 로동당들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들의 수가 70개였던것이 2010년에는 280여개에 이르렀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광란적인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발구름소리 드높이 승승장구하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은 세계인민들에게 사회주의재생에 대한 드놀지 않는 신심과 기대를 안겨주고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북조선은 앞으로 조선반도뿐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적판도에서 다시 사회주의재생을 몰아올 가장 영향력있는 존재로 될수 있다.》고 하였다.

지구상에 자본주의만이 존재하는 《1극세계》를 추구하는 미제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조선의 존재는 더는 허용할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후에 조선인민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끈질긴 제재와 압살책동에 매달려왔다.

조선은 또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을 반제자주의 길로 이끄는 시대의 기수이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미국의 《새로운 세계질서》에서는 《발전도상나라들가운데서 오직 미국의 괴뢰로 되고있는 나라들만 생존하는것이 허용》된다고 쓴 미국의 어느 한 반전반핵활동가의 글을 실었다. 이것은 미제의 《새로운 세계질서》에 숨겨진 내막의 한 부분이다. 달리 말해서 이것은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이 발전도상나라들과 인민들을 미국의 종속물로 만들것을 노린 노예의 질서라는것을 경고한것이다.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을 노예화하기 위한 미제의 지배질서는 불공평한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평등하고 공정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는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리익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미제는 발전도상나라들에 강권과 위협공갈로 저들의 의사를 내리먹이며 저들에게 순종하

지 않는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나라들에 폭력을 휘두르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자주의 정신으로 각성된 인민들은 도처에서 미국의 전횡에 항거해나서고있으며 그러한 대렬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자주의 정신으로 각성된 인민들은 두려울것이 없으며 이러한 인민들은 그 어떤 폭력으로도 굴복시킬수 없다.

미제는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을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으로 깨우쳐주는 자주사상의 발원지, 주체조선을 그대로 두고서는 세계지배를 실현할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진행된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은 세계적범위에서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수세기동안 숙명의 포로로 력사밖에 밀려나 시대의 버림을 받고있던 수억만 인민들이 주체의 빛발아래 세기적잠에서 깨여나 인간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를 위한 성스러운 해방투쟁에 떨쳐나섰다.

1954년 11월 오데스산에서 울린 한방의 총소리로 알제리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이 시작되였으며 아프리카의 도처에서 식민지쇠사슬을 끊어

버리기 위하여 일떠선 인민들의 해방투쟁의 파도가 《암흑의 대륙》으로 불리우던 온 아프리카땅을 휩쓸고 1960년대가 아프리카의 독립의 년대로 되게 하였다.

1960년대 후반기 미제의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를 나포한 조선인민의 영용한 투쟁은 미제의 위협공갈에 위축되였던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새 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발전도상나라들에 지배의 마수를 뻗치려고 침략과 간섭, 파괴와 모략을 일삼던 미제의 오만한 코대를 여러번 꺾어놓은 조선인민의 승리에 고무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독립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하기에 미국의 어느 한 출판물까지도 《북조선은 발전도상나라 사람들의 정신에 자주의 불을 달아주는 원동력》이라고 하였다.

발전도상나라들속에서 반제자주의 기운이 높아가고있는데 불안을 느낀 미제는 발전도상나라들에 반제자주의 열풍을 몰아오는 발원지인 주체조선을 없애버리려는 야망을 굳히였다.

조선을 제거하기 위하여 미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며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사용하는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것을 숨기지 않았다.

미제가 조선반도를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기본과녁으로 삼고있는 리유는 또한 조선반도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요충지대라는것과 관련된다.

조선반도의 북부는 넓은 아시아대륙과 잇닿아있고 동서남 세 면은 태평양의 북서쪽연안들인 조선동해, 조선서해, 조선남해로 둘러싸여있다.

조선반도의 륙지의 북부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로씨야와 잇닿아있는데 이를 통해서는 아시아와 유럽지역으로 나갈수 있다. 다시말하여 중국을 통해서는 웰남, 라오스, 먄마, 타이, 캄보쟈, 말레이시아 그리고 아시아의 맨 아래부분에 위치하고있는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나라들로 쉽게 나갈수 있으며 로씨야를 통해서는 울라지보스또크를 거쳐 유럽지역과 중앙아시아지역으로 나갈수 있다.

이처럼 조선반도가 륙로상으로 아시아와 유럽지역으로 나갈수 있는 《지름길》로 되고있는것은 조선반도가 동아시아의 거의 가운데부분에 자리잡고있기때문이다. 조선반도는 위도상으로는 N 33° 06′ 45″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쪽끝)와 N 43° 00′ 33″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북쪽끝)사이에 있으며 경도상으로는 E 124° 10′ 45″ (평안북도 신도군 비단섬 서쪽끝)와 E

131° 52′ 28″(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동쪽끝) 사이에 놓여있다.

때문에 군사적힘에 의한《1극세계》수립을 제창하는 미제에게 있어서 조선반도는 아시아나라들을 쉽게 정복할수 있고 나아가서 전세계를 지배할수 있는 더없이 중요한 군사전략적요충지대로 되고있는것이다.

조선반도의 해상은 태평양과 련결되여있기때문에 아시아태평양의 그 어느 지역, 그 어느 나라와도 련계를 가지는데 매우 유리하다.

19세기에는 미국을 비롯한 아메리카지역의 나라들이 아시아로 오자면 대서양을 건너 아프리카의 남쪽을 에돌아 인디아양을 거쳐야만 하는 멀고먼 항로를 항해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오늘은 일본렬도나 특히는 조선반도라는 중간지대를 거쳐 말라까해협을 지나 인디아양으로 쉽게 항해할수 있다. 그것은 조선반도가 태평양과 인디아양의 중간지대로서 여기서 연료나 음료수 기타를 공급받을수 있는 맞춤한 기지로 되기때문이다.

군사적우위로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 그 어느 때나 진출하려는 미제에게 있어서 조선반도는 해상으로 보아도 군사전략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대인것이다.

이와 같이 아시아대륙과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는 수륙량면의 유리한 특성을 가진 조선반도는 아시아태평양의 임의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긴급사태도 최단시일내에 평정하고 지역안정을 보장하는것을 자기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있는 미제에게 있어서 어느 지역도 대신할수 없는 긴요한 전방군사전략거점이다.

군사전략상의 더없는 요충지대인 조선반도를 미국의 전방군사전략거점으로 안전하게 리용하기 위하여 미제는 전조선을 통채로 저들의 세력권안에 두며 여기에서 미국의 완전한 행동의 자유가 담보되게 하는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미제가 조선반도를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기본과녁으로 삼고있는 리유는 또한 조선반도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전략적지대라는것과 관련된다.

조선반도는 아시아대륙과 태평양이 잇닿아있는 곳에 놓여있기때문에 대륙과 대양의 특성을 다 반영하는 다양한 자연조건을 가지고있다.

조선반도에는 여러가지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여있다. 그리하여 오랜 옛날부터 조선반도는 세계《유용광물의 표본실》이라고 불리워왔으며 절승경개의 으뜸이라고 손꼽혀왔다.

조선반도에서 이미 알려진 광물의 종수는

300여종이며 그가운데서 유용광물만 하여도 200여종이나 된다.

조선반도는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기때문에 수산업과 해상운수를 발전시키고 바다자원을 개발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조선반도는 자원이 풍부할뿐아니라 경치 또한 아름다워 유망한 관광지들이 많다.

조선반도는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특히는 동북아시아지역에 속하는 곳으로서 세계경제발전의 매우 유리한 지대이다.

정치, 군사전략상 의의로 하여 대국들이 치렬한 대결을 벌리고있는 바탕에는 언제나 경제적리해관계가 놓여있다. 아시아태평양의 시대로 불리우고있는 오늘 아시아태평양지역이 대국들의 격렬한 경쟁무대로 되고있는것은 이 지역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될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안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20세기 후반기에 와서 세계경제의 활력있는 중심무대로 되였다. 세계전체의 국민총생산액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에 41％였던것이 1990년에는 50％로, 1993년에는 55％로 계속 올라갔다. 1997년에 세계적으로 년간 강철생산량이 1억t을 넘은 나라가 3개였는데 그중 1위와 2위

는 아시아나라였다.

세계무역의 중심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겨졌다.

아시아지역이 풍부한 원료자원과 빠른 경제성장으로 하여 절대로 외면할수 없는 사활적인 지역으로 되고있다는것은 미국이 아시아지역에 경제적으로 많이 의탁하고있다는데서도 알수 있다.

서아시아에는 석유자원과 천연가스가 무진장하게 매장되여있고 동아시아에도 역시 풍부한 자원과 함께 세계인구의 40%나 되는 고급한 로동력이 있다.

앞으로 세계 주요국가들의 경제발전전망은 가공능력이 비상히 커진 공업에 대한 원료를 얼마나 충분히 공급보장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풍부한 원료의 보물고로서 세계적인 관심사로 되고있는 곳은 동북아시아지역이다. 그것은 세계적판도에서 각종 원료가 풍부하고 수송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은 동북아시아 즉 로씨야의 원동지방과 중국의 동북지방뿐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동북아시아지역을 개발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수송문제이다. 수송문제를 푸는데서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잡고있는 조선반도를

리용하는것은 필수불가결의 요구로 나서고있다.

로씨야의 원동항구는 겨울기간에 얼어붙어있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선반도의 항구를 리용하지 않을수 없다. 동북아시아의 원료와 제품을 다른 나라로 내가는데서 조선반도를 통하여 해상이나 지상으로 수송하게 되면 거리와 시간을 크게 단축할수 있다. 거리와 시간을 단축한다는것은 원가를 낮추는것으로 된다.

동아시아는 우수한 기술과 기능을 가진 인적자원이 풍부한 곳으로도 세계에 알려져있다. 이 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높은 기술로 제품을 생산한다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시장에서 주도적역할을 놀게 될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과 대국들의 관측이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한 아시아지역에서 다른 대국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데 신경을 쓰고있는 미제는 아시아 특히 경제적전략지대인 동북아시아의 관문에 위치하고있는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틀어쥐려고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이처럼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요충지인 조선반도와 련결되여있다. 따라서 미제는 조선의 존재를 그대로

두고서는 도저히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할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였다.

이로부터 미제는 조선을 제거하고 조선반도를 통채로 지배하는것을 세계제패전략실현의 주요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행을 위해 조선문제를 국제화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다.

미국의 속심

나라와 민족, 국가관계와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국제화한다는것은 나라와 민족, 국가관계, 국제사회에 위험을 조성하거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것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론쟁거리로 되는 문제를 가지고 국제적여론을 불러일으키거나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유엔의 승인밑에 다른 나라들과 합세하는 등 어느 한 나라의 문제를 국제적문제로 확대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조선문제에는 력대 국제사회에 위험을 조성하는 론쟁거리로 될만한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지난 시기는 물론 오늘날에도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조선문제를 국제화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조선문제가 조선민족의

자주적요구와 의사에 배치되게 렬강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처리된 때로부터 8.15해방후 남조선에서의 괴뢰정권의 조작, 조선전쟁의 발발, 조선통일의 장애조성, 핵위기사태 등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엄혹한 난관이 조성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조선문제에 국제기구의 이름을 도용하고 추종국가들을 끌어들인 미제에 의하여 산생된것이다.

조선문제를 국제화해온 미제의 책동은 국제적여론을 불러일으켜서라도 저들의 일방적인 국가리익을 실현해보려는 가장 파렴치한것이였다.

미제는 저들의 침략과 간섭, 전쟁책동이 국가리익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라고 떠벌이고있다.

국가리익보호라는 말은 그럴듯하나 그속에는 미제의 침략적본성이 깔려있다.

지구상에는 주권국가들이 수다히 존재하고있다. 그 나라들은 모두가 자기의 국가리익을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것이 침해당하는것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자기 나라의 국가리익이 귀중하다고 하여 다른 나라의 국가리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해서는 안되며 더우기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지배와 예속을 실현하려는 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 나라들사이에서는 충돌을 피할수 없

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전쟁을 유발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의 국가리익은 나라들사이에 평등과 호혜, 존중의 원칙에서 설정되여야 옳은 것이다.

그런데 미제의 국가리익은 전혀 다르게 설정되고있다. 다시말하여 미제가 제창하는 국가리익은 세계를 지배하며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략탈하는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1999년 2월 미제는 21세기에 대비한 세계전략을 밝힌 《국방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제의 국가리익에는 미국의 주권과 령토, 주민의 보호와 함께 적대적인 지역동맹이나 패권국출현의 저지, 거점시장, 에네르기공급, 전략자원에로의 제한없는 접근보장이 포함되여있다. 이렇게 미제는 《유일초대국》으로서 저들만이 패권주의자가 되여 세계를 제패하며 다른 나라의 전략자원들을 독차지하겠다는것을 공공연히 선포한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략탈하여 제 배를 채우려는 제국주의괴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미제는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조선반도를 통채로 저들의 지배하에 넣고 식민지화하

려고 하고있다.

전조선을 지배하기 위하여 국제회의들과 추종국가들을 조종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조선반도의 북쪽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마저 지배하기 위하여 온갖 고립압살책동을 다하여왔다.

미제는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의 일환으로 조선문제를 국제화하는데 전력을 쏟아부었다.

미제가 추구하는 조선문제의 국제화책동은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면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와 압력의 포위망을 형성하여 질식시킴으로써 전조선에 대한 지배야망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가장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이다.

남조선의 《KBS》방송은 《미국이 북에 대해 경제적, 정치적압력을 강화》하는 국제적포위망전략을 펴고있는데 그것은 《경제적, 정치적압박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 북의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미제의 조선문제의 국제화책동은 조선의 정치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적인 제재와 압력으로 사회주의제도와 국가를 허물어버림으로써 조선반도전체에 대한 지배야망을 기어코 실현하며 나아가서 조선반도를 발판

으로 하여 전 아시아대륙, 세계를 제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침략과 략탈은 미제의 고유한 본성이며 그것을 은페하기 위하여 그 어떤 간판을 내드는것이 미제의 상투적수법이다. 19세기에 북아메리카의 서부지역을 침략하였을 때 그 무슨 《개척》이라고 떠들어댄것도 미제였고 20세기 중엽에 남조선을 강점하고 이른바 《해방자》, 《원조자》로 자처해나선것도 미제였으며 21세기초에 이라크를 가로타고앉아 《해방자》, 《평화유지군》으로 행세한것도 다름아닌 미제였다.

미제는 력대로 조선문제를 다루는데서 저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유엔이나 국제기구, 추종국가들을 조종하여 음흉한 목적을 실현해왔다.

미제는 조선문제를 대하는데서 저들이 단독으로 행동하는것보다 유엔이나 국제기구, 추종국가들을 통하여 《해결》하는것이 국제적으로도 명분이 서고 합리성도 띤다고 타산하였던것이다. 다시말하여 조선을 고립압살하여 전조선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합법성, 타당성을 인정받으려고 하였다.

국제적여론을 불러일으키는데서도 미제는 시기마다 갖은 구실을 다 가져다붙였다.

미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해방된 조

선인민에게 《자치능력이 부족》하기때문에 조선에 대한 국제적《신탁통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떠들었고 남조선괴뢰정권이 유엔에 의하여 《수립》되였기때문에 남조선을 지원할 임무가 유엔에 있다고 하면서 조선전쟁에 추종국가들을 끌어들이였으며 조선의 통일을 국제무대에서 《해결》하여야 하기때문에 북과 남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자본주의나라들이 남과 북을《교차승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두개 조선》문제를 국제화하였다.

그리고 그 무슨 《핵문제》, 《대량살륙무기전파방지문제》, 《인권문제》 등을 구실로 조선에 대한 국제적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열을 올리며 돌아쳤다.

미제의 국제적여론환기소동은 저들의 대조선정책의 요구에 맞게 조선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국제적명분을 마련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일제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가서도 전조선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할수 없게 되자 그 무슨 유엔《결의》에 의한 《단독선거》조작놀음을 벌려 끝내 남조

선에서 괴뢰정권을 조작해냄으로써 조선에서의 통일적민주주의림시정부수립을 파탄시키고 조선을 북과 남으로 분렬시켰다.

당시 미제는 이전 쏘련이 조선의 미국측 지역에서 반란을 조장한다고 하며 쏘련의 팽창주의적정책을 막기 위해 이른바 《진정한》 조선독립문제를 유엔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유엔의 감시》하에 남조선에서의 《단독선거》실시를 떠들어대였다.

그러나 이것은 침략자, 간섭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유엔무대를 통하여 가리우기 위한 넉두리에 불과하였다.

그것은 1947년 9월 당시 미국대통령 트루맨에 의하여 남조선에 급파되였던 웨드마이어가 정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보고서에는 미군이 철수하면 남조선이 적화되여 조선반도가 쏘련의 위성국으로 되고 일본역시 적화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등 공산주의의 파급을 도와주는것으로 될것이다, 때문에 미국이 조선에서 기도하는 문제를 쏘미공동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를 쏘미영중 4개국회담에서 풀며 거기에서도 성공 못하면 유엔에서, 유엔에서 해결 못하면 미국이 단독으로 처

리해야 한다고 지적되여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된다는것이였다.

이러한 사실은 미제가 이미전부터 조선문제를 국제화하기 위한 계획을 짜놓고 실행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또한 미제는 조선에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내세우면서 《북조선인권법》까지 조작하고 국제적《인권공세》를 도수높게 벌리고있다. 미제는 조선의 《인권개선》에 대해 운운하면서 《체제전복》을 재정물질적으로 안받침하며(여기에 가담하는 단체 및 개인들에게 미국정부의 예산으로 매해 2 400만US＄를 지출한다고 한다.) 그 실현에 다른 나라들이 참가할것을 강요해나서고있다.

이것은 명백히 그 무슨 《인권문제》를 코에 걸고 감행되는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행위를 은페하고 조선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국제적타당성, 국제적명분을 얻으려는 미제의 교활한 책동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의 대조선정책은 조선을 고립압살하여 전조선에 대한 지배를 실현함으로써 세계제패전략의 교두보로 삼는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제는 국제기구나 추종국가들

을 여러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저들의 목적실현에 리용하고있다.

여기서 미제가 주요하게 노리는것은 저들이 직접적인 피해와 손해를 보지 않고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한다는것이다.

자기들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미제의 상투적수법이다.

제1차 세계대전(1914년-1918년)시기에 미제는 처음에는 《중립》의 간판밑에 무기를 교전쌍방에 팔아 막대한 돈벌이를 하다가 전쟁의 마감이 다가오자 전후 분배몫분할에 참가하기 위하여 1917년 4월 《협상국》측에서 전쟁에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미제는 전쟁기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많은 30억US$라는 리윤을 긁어모았으며 미국은 채무국으로부터 채권국으로 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도 미제는 반파쑈련합국으로 행세함으로써 전후 자본주의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막대한 리윤을 획득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미제는 조선문제를 국제화하여 추종국가들을 끌어들이였다.

미제가 유엔을 통하여 조선전쟁에 15개 추종국가군대들을 끌어들인 기본목적은 동맹국들의

희생의 대가로 전쟁의 부담을 덜어보려는데 있었다.

조선전쟁시기 미제는 가장 위험한 곳에는 례외없이 추종국가군대들을 내세웠다.

수십만의 《유엔군》이 포위섬멸되고있던 이른바 1950년 《12월의 총퇴각》시 전선동부에서는 영국해병부대가, 전선서부에서는 영국 제29려단이 퇴각하는 미군의 엄호에 나섰다가 전멸되였다. 미군의 원주《철퇴작전》의 후위를 맡은 프랑스군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고 그리스군은 괴멸되였으며 《총공세》의 최전선에 투입되였다가 퇴각할 때에는 후위에 선 뛰르끼예려단도 전멸되였다.

조선전쟁에 동원된 추종국가군대들의 희생의 대가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미제의 교활한 책동에 의하여 3년간의 전쟁에서 3만 600여명의 추종국가군대가 살상 및 포로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프랑스군의 화리에 중위는 자기 일기에서 《프랑스병사들은 조선에서 문자그대로 우둔한 노새처럼 리용》되고있으며 《가렬한 전투의 주요부담은 우리들의 잔등에 업혀놀려는 미국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짊어지고있다》고 불평을 늘어놓았고 필리핀 제10대대에 속한 고용병 히메네스하사관은 저들이

《제2부류의 인간》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하면서 《전체 조선전쟁기간중에 미국 제3사단전체는 필리핀인보다 적은 병사를 살상당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전쟁에서 미제는 《유엔군》의 감투를 쓴 추종국가군대들의 피의 대가로 저들의 손해를 약화시키고 조선전쟁을 속전속결로 손쉽게 끌내려는것과 같은 리득을 얻어보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침략자들간의 모순을 증대시키고 미제를 더욱 고립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선전쟁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미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대조선정책실현에 유엔이나 국제기구, 동맹국들과 추종국가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침략적이고 강도적인 대조선정책을 쉽게 이루어보려고 여러모로 책동하여왔다.

검은 마수

반세기이상이나 조선문제를 국제화해온 미제의 책동은 가장 악랄하고 교활하며 집요한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조선문제를 국제화해온 미제의 책동에서 특징적인것은 우선 여기에 국제기구나 추종국가들

을 끌어들여 리용하였다는데 있다.

미제는 국제무대에서 유엔이나 추종국가들을 비롯한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들을 조선문제에 인입시켜 마치도 조선문제가 국제적으로 복잡한 문제인듯이 여론화해왔다. 그것은 조선반도문제에 그 누구보다도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것이 미제이기때문이다.

미제에게 있어서 정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있는 조선반도를 차지하는것은 사활적문제였다. 조선반도를 차지하지 않고서는 동북아시아지역을 포함한 아시아대륙과 나아가서 전세계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할수 없다고 본것이 미제였다. 다시말하여 미제는 조선반도를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한 고리로 보았다.

때문에 미제는 지난 60여년동안이나 조선반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선문제의 국제화와 같은 여러 계략들을 고안해내였을뿐아니라 그 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엔이나 추종국가들을 조선문제에 개입시켜 조선문제가 저들의 요구에 맞게 취급되도록 국제무대에서 책동하였다.

미제는 여러 기회에 조선을《악의 축》,《폭정의 전초기지》,《테로지원국가》,《불량배국가》,《위험국가》,《대량살륙무기전파자》 등

으로 몰아대면서 국제적인 압박대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유엔이나 국제기구, 추종국가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발동하여 조선에 압력을 가하고 제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광분하였다.

미제가 대조선국제화책동에 끌어들인 국제기구나 추종국가들은 조선반도문제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것이 아니였다.

유엔이나 국제기구들은 대부분 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할당하는 미국의 투자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때문에 미국의 권고안이나 발기안들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이였으며 미제의 강권과 압력밑에 조선문제를 다루었다.

추종국가들도 미제의 압력과 조종에 의하여, 미제가 던져주는 얼마 안되는 《원조》를 얻어먹기 위하여 미제의 대조선국제화책동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반도문제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국제기구나 추종국가들을 조선문제의 국제화에 리용한 미제의 교활성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조선문제를 국제화해온 미제의 책동은 또한 론의나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문제를 해결하려고 한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단에로 몰아가 무조건

국제적인 압력과 제재, 봉쇄를 가하였다는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유엔무대를 통한 국제회의들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유엔에서 어느 한 나라의 문제를 론의하는 경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데로 지향되여야 한다. 더우기 문제해결을 위한 토의나 협상을 심중하게 한 후 타당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론의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나라의 자주권이 무참히 침해당하는것은 물론 그 나라의 문제가 더욱더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적문제로 복잡하게 번져지리라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그러나 미제는 조선문제에 관한 정당한 해결책이나 방도를 론하기 위하여 유엔무대에서 국제회의들을 벌려놓은것이 아니였다.

미제에게는 이미전부터 조선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계획이 작성되여있었다. 미제는 이것을 국제무대에서 통과시키기 위하여 조선문제에 관한 국제회의들을 형식상 소집해놓았던것이다.

미제는 국제회의들에서 저들이 내놓은 조선문제에 관한 그 무슨 《결의》들에 대하여 여러 나라들이 반박할 때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론의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였다. 그리고는 서둘

러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라 국제적인 압력과 제재, 봉쇄만이 조선문제해결의 《유일한 방도》인것처럼 떠들어대면서 국제기구나 추종국가들을 무작정 떠밀었다.

미제가 저들 혼자서도 조선에 대한 압력과 제재, 봉쇄를 실시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제화한것은 조선문제에 대하여 국제무대에서 론의를 하였다는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다시말하여 국제무대에서 조선문제가 론의되고 해당한 《결정》이 채택되였다고 함으로써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국제적인 절차를 밟았다는것을 형식상 인정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렇듯 국제회의과정만을 보더라도 조선문제를 국제화해온 미제의 범죄적책동이 진정으로 조선문제를 국제관계속에서 해결하려고 한것이 아니라 조선에 국제적인 제재와 압력, 봉쇄를 공개적으로 가하기 위한 교활하고 악랄한 행위였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조선문제를 국제화해온 미제의 책동은 또한 그것이 어느 한 분야에서만 진행된것이 아니라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등 모든 면에서 감행되였고 그 방법도 위협공갈, 압력, 공격, 제재, 봉쇄 등 다종다양하였다.

미제는 조선문제를 국제화하는데서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만 고립압살수법을 적용한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여러가지 방법을 다종다양하게 배합하였다.

미제는 조선을 고립압살하기 위하여 그 어떤 시공간적인 차이나 간격을 조금도 두지 않았다. 오직 조선을 고립압살하며 전조선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할 때까지 숨돌릴 틈을 조금도 주지 않고 련속 국제적인 강타를 안기는것을 제놈들의 절대적인 권리로 여겼으며 공화국의 그 어떤 의사나 요구를 애당초 념두에 두지도 않았다.

조선문제를 국제화해온 미제의 책동은 그의 분야별 규제대상에 있어서 조선의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있다.

미제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국제화소동을 일으켜 조선에 압력을 가하였다면 반드시 그와 동시에 군사적인 위협공갈과 경제제재, 봉쇄조치를 국제무대를 통하여 취하였다.

미제는 조선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을 실현함에 있어서 동맹국들과 추종국가들을 규합리용하여 침략적인 군사기구와 동맹을 조작하고 그를 통한 위협공갈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경제적제재와 제한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국제회의와 국제기구, 선전수단들을 리용하여 온갖 정치적모

략책동을 다하였다.

이와 함께 미제는 분야별대상에 따라 위협, 공갈, 압력, 공격, 제재, 봉쇄 등 여러가지로 매우 악랄하고 파렴치하고 비렬한 수법을 적용하였다.

조선문제를 국제화해온 미제의 책동은 제재와 봉쇄를 통한 국제화책동기간이 가장 오랜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냈다.

조선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압살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그 수단과 방법, 악랄성에 있어서뿐아니라 그 기간에 있어서도 인류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파쑈도이췰란드는 동맹국인 핀란드군과 함께 이전 쏘련의 레닌그라드를 1941년부터 약 3년동안 봉쇄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전시도 아닌 평화시기에 한개도시가 아니라 주권국가인 조선을 대상으로 반세기이상이나 국제적인 제재와 봉쇄를 실시하고있다.

평화시기에 제재와 봉쇄를 통한 미제의 대조선국제화책동기간도 역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볼 때 가장 끈질기고 집요하다.

조선에서 미제는 60여년동안이나 저들의 세계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재와 봉쇄를

통한 압살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하였다.

이처럼 조선문제를 국제화해온 미제의 책동은 인류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악랄하고 날강도적이며 가장 파렴치하고 교활하며 가장 끈질기고 집요한 범죄적행위이다.

조선문제가 국제화되기까지 1
조선문제는 이렇게 생겨났다

편 집 : 김준혁
낸 곳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 행 : 주체106(2017)년 7월

ㄱ- 7202106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http://www.naenara.com.kp

ISBN 978-9946-0-1653-5

9 789946 016535

조선 · 평양
주체106(2017)년